

# 메도루마 순의 『눈 깊숙한 곳의 숲』론\*

## - 식민주주의적 폭력의 현재 -

소명신\*\*  
smskk0604@jejunu.ac.kr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폭력의 기억과 기억의 폭력 |
| 2. 사건의 진실을 향해 집주하는 목소리들 | 5. 나오며            |
| 3. 텍스트를 구성하는 폭력의 양태     |                   |

主題語: 식민주주의적 폭력(colonial violence), 비가시화된 폭력(non-visualized violence), 폭력의 기억(memory of violence), 기억의 폭력(violence of memory), 목소리(voice)

## 1. 들어가며

오키나와 출신의 작가 메도루마 순(目取真俊:1960~)의 『눈 깊숙한 곳의 숲(眼の奥の森)』(影書房, 2009.05)은 2004년 가을호부터 2007년 여름호에 걸쳐 계간지 『전야(前夜)』(총12회)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수정·가필하여 단행본으로 발간한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본도 북부의 작은 섬에서 발생한 4명의 미국 병사에 의한 17살 소녀 성폭행사건과 이러한 미군의 폭력에 작살로 대항한 소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사건 이후의 삶이 과거와 현재를 횡단하며 다양한 인물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지금까지 메도루마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그것은 사건의 당사자와 목격자, 그리고 사건에 관해 전해들은 제3자 등이 시점인물로 설정되어 사건의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형식으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덤불 속(藪の中)」을 떠올리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고시카와 요시아키(越川芳明)와

\* 이 논문은 2015년 제주대학교 혁신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1) 작가 오시로 사다토시(大城貞俊)는 「記憶~挑戦する言葉の力」(『琉球新報』2009.08.23)에서, 고시카와 요시아키(越川芳明)는 「森の洞窟に響け、ウチナーの声」(『小説トリッパー』2009 冬季号)에서 각각 『眼の奥の森』에 대한 서평으로 수법상의 특징으로서 「藪の中」와의 유사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즈키 도모유키(鈴木智之)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점 인물에 의해 특정 사건이 서술되고 있지만, 이들의 서술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거나 진실의 복수성(複數性)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눈 깊숙한 곳의 숲』은 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이 주요한 모티브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인 「희망(希望)」(『朝日新聞』1999.06.26.夕刊)과 『무지개 새(虹の鳥)』(影書房, 2006.06)와 동일한 지평에서 논의되어지는 경향이 있다.)<sup>3)</sup> 두 작품은 1995년 9월 4일, 12살의 소녀가 미병 3명에게 성폭행당한 사건과 이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항의집회와 데모가 공통된 모티브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군의 폭력에 대항하여 미군의 아이를 살해한다는 전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군의 폭력과 이에 대한 대항폭력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오키나와에서 폭력론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희망」의 경우, 2001년 9·11자폭테러가 발생하자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응징한다는 자세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고, 이로 인해 미군기지 섬 오키나와가 위기적 상황에 놓이게 되자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무지개 새』가 집필되던 2004년에는 오키나와국제대학에 미군의 헬기가 추락하여 대학이 미군에 의해 봉쇄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오키나와인들은 미군의 군사적 폭력에 대해 또 한 번 정치적 무력감을 맛보아야 했던 해이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오키나와에서도 오키나와가 당면한 현실과 관련하여 폭력론이라는 담론 속에서 메도루마의 소설이 재조명되었던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폭력론이라는 담론 속에서 『눈 깊숙한 곳의 숲』이 「희망」과 『무지개 새』와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작품론으로서는 2편 정도의 논고에 지나지 않는다.)<sup>5)</sup> 나카자토 이사오(仲里効, 2012)는 『눈 깊숙한 곳의 숲』을 오키나와의 언어문제와 전쟁 경험이

2) 越川芳明(2009)「森の洞窟に響け、ウチナーの声」(『小説トリッパー』冬季号, p.435)와鈴木智之(2013)『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銚—目取真俊の<文学>と沖繩戦の記憶』(昌文社, p.148)

3) 고시카와 요시아키(越川芳明, 2009)는 「森の洞窟に響け、ウチナーの声」(『小説トリッパー』冬季号)에서 『눈 속의 숲』을 『무지개 새』와 「희망」을 ‘복수’를 주된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고, 광형덕(2015)의 「메도루마순문학과 미국-미군에 대한 ‘대항폭력’을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56) 또한 세 작품을 미국에 대한 대항폭력이라는 동일한 지평에서 논하고 있다.

4) 오키나와에서의 폭력에 관한 담론의 대표적인 예로는 西谷修·仲里効『沖繩暴力論』(未来社, 2008.08)를 들 수 있고, 메도루마의 작품에 대한 재해석의 예로는 新城郁夫『塞がれたロー目取真俊「希望」からの想起』(『沖繩文学という企て—葛藤する言語・身体・記憶』(インパクト出版会, 2003.10)와 「フェンス：占領と分断を越えて」(『EDGE』13号, 2004.07)를 들 수 있으며, 『무지개 새』와 관련된 논고는 대부분 폭력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2편의 논고란 나카자토 이사오(仲里効 2012)의 「사랑스런 마보-메도루마 숲과 마이너문학(いとしのトットロー—目取真俊とマイナー文学)」(『悲しき巫言語帯—沖繩・交差する植民地主義』未来社, 2012.05)와 스즈키 도모유키(鈴木智之 2012)의 「폭주하는 기억-『눈 깊숙한 곳의 숲』에 있어서의 <비전> 획득과 <목소리>의 회복(輾轉する記憶)-『眼の奥の森』における<ヴィジョン>の獲得と<声>の回帰」(『社会志林』59(1), 2012.07).

라는 측면에서 들뢰즈·가타리가 카프카의 문학을 통해 정의하는 마이너문학으로 해석하고 있다. 스즈키 도모유키(鈴木智之, 2012)의 경우, 막연한 환기나 회귀에서 시작된 기억의 상기가 사건의 진상을 이야기하는 결정적인 시야, 즉 ‘비전’을 획득해 가는 텍스트의 운동성에 주목하여, 각각의 시점인물이 획득한 ‘비전’이 오키나와를 둘러싼 언설 공간에서 들리지 않은 것으로 배제된 ‘목소리’를 부상시키는 회로로서 존재함을 논증하고 있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소설 자체에 명확한 장의 구별은 없으나, 시점 인물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했을 때 총 10개의 장으로 나뉘며, 장마다 시점인물을 달리하면서 공적인 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한 파편적인 기억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 다양한 목소리에 의해 복원해 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눈 깊숙한 곳의 숲』이 가지는 독특한 서술구조에 주목하여 소설 속에서 발현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미군의 군사폭력에 대한 대항폭력과는 다른 관점에서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다양한 시점인물에 의한 서술구조와 이들에 의해 서술되는 폭력의 양태를 분석하여, 이것이 철망의 펜스로 장벽이 쳐져 있는 상태가 상징하는 식민지적 상황하의 식민지주의적 폭력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폭력의 기억이 일상 속에서 비가시화된 형태로 새로운 폭력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비가시화된 폭력에 대해, 나아가 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눈 속의 숲』은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사건의 진실을 향해 집주하는 목소리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본도 북부의 낙도를 무대로 “미국인들이 헤엄쳐온다”<sup>6)</sup>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소설 공간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얇은 바다에서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 5명의 여자아이들을 향해, 섬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가설 항구에서 헤엄쳐온 4명의 미국 병사가 17살의 사요코(小夜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소총을 들고 섬에 다시 나타난 미병들은 마을의 남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다. 이러한 미병의 폭력은 물론, 그들의 횡포에 대해 저항과 항의는커녕 공포에 질려 그저 사태를 지켜보기만 할뿐인 마을의 어른들에게도 분노한 소년 세이지(盛治)가 복수를 결심한다. 마을을 향해 헤엄쳐오는 4명의 미병을 향해 세이지는 혼자서 작살로 맞서, 그 중

6) 目取真俊(2009)『眼の奥の森』影書房, p.3 \*본 논문의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임. 이하 논지 전개 과정에서 『眼の奥の森』로부터의 인용은 인용한 페이지만 표기함.

한 명이 복부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된다. 미병의 추적을 피해 숲 속의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세이지는 마지막까지 복수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체포되고 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1945년 전쟁 말기가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1장은 사요코가 성폭행을 당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후미(フミ)의 시점과 세이지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미군의 가설 항구가 보이는 벼랑 위에서 섬을 향해 헤엄쳐오는 미병을 향해 세이지가 그들을 작살로 찌르는 장면까지도 목격하게 되는 후미와 미병에게 중상을 입힌 후 동굴 속에 숨은 세이지의 시점으로 연속하여 발생한 두 사건의 전말이 서술되고 있다.

이어지는 2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으로부터 60년이 지난 2005년이 현재적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사건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의 시점을 통해 60년 전의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장의 시점인물은 사건 당시 구장을 지냈으며 미군의 세이지 체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요(嘉陽)로, 오키나와전에 관해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여성과의 대화 내용과 가요의 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3장은 후미 등과 함께 사요코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10살 소녀가 60년이 지나 일흔의 노인이 된 히사코(久子)의 시점으로, 사건과 관련된 단편적인 기억을 점차 복원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식적으로 망각하고자 했던 폭력의 기억이 일상 속에서 비가시화된 폭력으로 새롭게 도래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장은 시점인물이 다시 후미로 전환되고, 히사코의 연락을 받은 후미가 아들과 함께 나온 히사코를 맞이하여 사건 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결락을 서로 메워간다.

5장의 시점인물은 60년 전 미병이 던진 최루탄가스로 인해 시력을 잃고 살아가는 노년의 세이지이다. 시각을 잃은 세이지에게는 수많은 목소리들만이 난입하고, 그러한 목소리의 주체들이 발하는 폭언과 폭력 속에서도 사요코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6장은 오키나와전을 체험한 마을사람들과는 세대를 달리하는 소설가 ‘나’의 시점으로 M으로부터 받은 영상편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도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나’가 대학의 문예동아리에서 만나게 된 M은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서 잠시 일했으나, 곧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M은 뉴욕에서 지내는 1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J라는 백인남성과의 인연으로 J의 조부, 즉 세이지의 작살에 부상을 입은 미병의 유품인 펜던트를 폐암 투병중인 자신을 대신해서 오키나와의 바다에 돌려줄 것을 ‘나’에게 부탁한다.

7장은 2005년에서 1945년으로 돌아가 세이지의 작살에 찔려 입원 중인 미병의 시점으로 성폭행 당시의 상황과 소녀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혐오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8장부터는 다시 2005년 현재로 돌아오는데, 시점인물은 1945년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14살 중학생 소녀로 설정되어 있다. 시청각실에서 70살 전후의 한 여성으로부터 오키나와전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이 여학생은 학급에서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8장에서는 집단따돌림이라는 폭력을 견뎌내며 살아가는 여학생이 현재의 자신과 성폭행 사건 이후를 살고 있는 이야기 속 피해여성의 삶을 중첩시키며 고통을 분유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8장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 체험을 이야기한 여성은 사요코의 동생 다미코로, 이어지는 9장은 다미코의 시점으로 사건 후 사요코의 고통을 함께 해온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사요코가 입원 중인 요양시설을 찾아가는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마지막 10장은 오키나와전에서 중군한 통역병들의 공적을 표창하겠다는 오키나와현의 호의에 대해 “오키나와에서 체험한 중요한 사건”(p.204)으로 인해 거절한다는 오키나와인 2세 통역병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눈 깊숙한 곳의 숲』은 1945년과 2005년이라는 두 개의 시간축을 이동하며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의 외딴 섬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사건의 진상을 향해 집주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구조는 1945년 당시 섬에서 발생한 미군의 성폭행사건과 미군에 대한 소년의 대항폭력에 대한 ‘증언’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런데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8명의 시점인물 중에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당사자, 이를 목격한 자, 사건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둔 제3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성폭행의 피해자인 사요코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없다. 이에 반해 사요코에 대한 미군의 폭력에 대항한 세이지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와 60년이 경과한 현재의 상황이 각각 2개의 장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세이지를 시점인물로 하는 2개의 장에 나타나는 서술 형태이다. 이것은 다른 장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으로 특히 5장의 경우 수많은 목소리들만이 텍스트 공간을 채우고 있고, 이들 목소리는 오키나와어와 표준어가 복잡하게 혼용되어 있고, 목소리의 주체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세이지가 시점인물인 장에서만 이러한 형태로 서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1장과 2장의 시점인물이 두 가지 사건의 목격자인 후미, 사건의 당사자인 세이지, 그리고 세이지의 체포 현장에 있던 가요로 설정되어 있어 그들이 서술하는 내용만으로도 전쟁 말기에 섬에서 발생한 사건의 실상은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인물을 달리하면서 집요하게 1945년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들은 『눈 깊숙한 곳의 숲』의 서술구조가 단순히 미군에 의한 성폭력과 이에 대한 대항폭력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시점인물이 서술하는 폭력의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다.

### 3. 텍스트를 구성하는 폭력의 양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장은 연속해서 발생한 두 사건의 목격자인 후미에 이어 시점인물이 세이지로 바뀌면서 미국 병사를 작살로 찌른 후 동굴 속으로 도망쳐 들어간 세이지가 수많은 목소리를 환청하고 환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그런 세이지를 비웃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 들은 대부분 세이지의 전쟁 체험으로 수렴된다.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세이지를 조롱하는 목소리였다.<sup>7)</sup> “표준어를 쓰려고 하면 혀도 입술도 볼도 굳어져 움직이지 않게 되고 얼굴이 타는 듯 뜨거워지는 것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sup>9)</sup>았지만, 세이지는 “일본을 위해, 천황폐하를 위해, 전쟁에 이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도 할 생각”(p.23)이었다. 방위대의 일원으로 섬에 배속된 일본군과 함께 싸우다 죽을 각오였던 세이지가 간절히 바란 것은 “불언실행의 야마토 남자”(p.24)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의 식민지주의 폭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동화의 폭력은 전쟁 시기에 특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오키나와인에게 있어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전장의 기억을 통해 고찰하고 있는 도미야마 이치로(富山一郎)는 오키나와의 경우 전시기에 특히 황민화정책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또한 오키나와에서 실시된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은 ‘생활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편중되었으며, 오키나와어 금지를 비롯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생활개선운동이 생활도덕으로써 수용되었다고 한다.<sup>8)</sup> 도덕적 실천으로서의 생활개선운동 속에 표준어를 구사할 수 없는 세이지는 상대적으로 도덕적 수치를 느꼈지만, 일본군과 행동을 같이 하며 “야마토 남자”가 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이 상륙하자 너무나도 쉽게 투항해 버린 일본군과 마을의 여자들이 미병에게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마을의 남자들을 대신해 단독으로 미병과 맞서고자 했던 것이다. 동굴 속에서 전쟁은 끝이 났고, 천황도 항복해서 목이 잘렸다는 목소리와 천황의 잘린 목을 들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환시하는 세이지이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미군과의 응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물론 세이지에게 식민지주의 폭력에 대한 자각은 찾아볼 수 없고, 마지막까지 누구보다도 일본인다운 ‘일본인’이 되고자 한 것이다.

7) 섬에서 유일하게 중학교에 진학한 2명의 친구가 철혈근황대(鐵血勤皇隊)에 동원되어 떠날 때 마을은 자신이 지킬 테니 천황폐하를 위해 싸우고 오라는 세이지의 말에 “왕이라니 넌 개냐? 빨리 표준어를 익혀, 일본인이니까(我ってお前は犬か? 早く標準語を覚えろよ、日本人なんだから)”라며 비웃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왕’은我到에 대한 오키나와어 발음이고, 개 짖는 소리를 나타내는 일본어 의성어는 왕왕(ワンワン)

8)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옮김(2002)『전장의 기억』이산, pp.44-49

세이지에게 있어 60년의 세월은 통시적 시간축에 따른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된 상태 즉, 시간의 전후가 교란된 상태이다. 세이지를 향한 수많은 목소리들로만 구성된 5장은 폭력적인 사태만이 반복하여 플래쉬백으로 세이지를 엄습하고 있다. 이러한 세이지에게는 자신의 체험을, 그리고 이후의 자신의 삶을 언어화할 능력이 없다. 세이지를 시점인물로 하는 장이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서술문장이 아니라 주체가 불분명한 목소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이지가 시점인물인 5장은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사요코……,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흘러가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바람도 부드러워져서 견뎌내기 쉬워졌는데 네가 있는 곳은 어디니? 너도 바다를 향해 이 바람을 맞으며 파도소리를 듣고 있는 거니? 아단 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모래위를 계가 달려 간 것도, 큰 전갱이에게 쫓긴 작은 물고기가 바다 위를 튀어 도망간 것도, 나는 이 귀로 알지만, 하지만 사요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너의 목소리아…… (p.103)

그리고 5장을 종결하는 문장 또한 “나는 지금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일은 비가 올러나……, 내 목소리가 들려? 사요코…….”(p.120)라는 세이지의 목소리이다. 이러한 세이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듯 사요코의 여동생 다미코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요코를 만나러 갔을 때, 바다를 응시한 채 중얼거리는 사요코의 한 마디, “들려, 세이지.”(p.202)라는 목소리가 9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서로의 상처를 분유하고 있는 두 사람의,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목소리를 통한 이러한 대화 장면은 폭력과 폭력의 상처를 서술하는 『눈 깊숙한 곳의 숲』에서 서정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5장은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인지 추정하기 어려우나, 매일같이 사요코를 추억하며 지내는 세이지의 모습이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세이지를 심문하는 통역병의 목소리, 구장의 목소리, 세이지를 바보 취급하며, 세이지의 용기있는 행동을 믿지 못하는 자의 목소리, 세이지를 걱정하는 동생의 목소리 등 수많은 목소리가 개입해 온다. 그리고 60년이 지나는 동안 사요코와 세이지의 사건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사실만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시각 장애를 갖게 된 세이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이다. “이런 놈이 죽어도 가족도 성가신 존재가 사라져서 고마워할 거

9) 『눈 깊숙한 곳의 숲』을 “아름다운 소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스즈키 도모유키(鈴木智之)는 그 아름다운 미군에 굴하지 않는 세이지의 “늠름한” 모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이 “늠름함”이 미적인 효과와 함께 정치적인 의미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鈴木智之(2013)『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銚—目取真俊の<文学>と沖繩戦の記憶』昌文社, p.146

야”(p.112), “너 같은 놈은 미국인에게 사살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밧줄을 준비할 테니까 이 가지에 걸어서 목을 매”(p.116), “세이지, 모두가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려?……; 네가 섬에서 나가길 바라는 거야……. 네가 무섭다고들 해……, 눈에 거슬리는 거지……,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관광객도 오게 될 테고……, 시설에 들어가면 어떨까……?”(pp.116-117) 등과 같은 목소리가 세이지를 향해 쏟아진다. 마을의 여자를 미병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시각을 상실한 세이지는 현재에도 폭언과 폭력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서 발현하는 이러한 폭력은 60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것이다. 미병 4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발광한 사요코를 “반항하지만, 미국인에게는 시켜주고, 우리한테 안 되는 거야?……”(p.118)라며 또 다시 폭행하여 임신을 시킨 것은 마을의 남자였다. 미국의 군사지배 하에 놓인 섬은 미병에 의한 부녀자 성폭행과 이에 대한 대항폭력이라는 정치적 의미의 폭력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비가시화된(혹은 비정치적인) 형태로 폭력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은 8장의 시점인물인 14살 여중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가혹한 집단 따돌림과 배제는 전쟁이라는 비밀상 외에 일상적인 차원에서 발현하는 폭력의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눈 깊숙한 곳의 숲』에서 정치적 의미를 띤 폭력의 경우, 폭력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폭력의 당사자인 사요코와 세이지, 그리고 사요코를 범하고 세이지의 작살에 찢린 미병, 이 세 사람의 삶은 모두 폭력에 의해 파괴된 삶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파괴된 삶의 근원에는 전쟁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비밀상이 초래한 폭력의 희생자인 것이다. 세이지의 작살에 찢린 남자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7장에서 ‘나’는 3명의 동료와는 달리 소녀를 폭행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도망치게 될 경우 그에게 닥쳐올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두려워하며 집단 폭행에 가담을 하게 되는 ‘나’의 머릿속에는 “소녀에 대한 동정보다도, 그것을 해 버리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망가져버려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불안”(p.146)을 감지한다. 사요코를 폭행하고 만 순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나’를 파괴해 버린 것이다. ‘나’와는 달리 가벼운 어깨부상으로 끝난 맥크로리가 자신들을 위협한 작살촉으로 펜던트를 만들어 ‘나’에게 건네는데, 이것을 손에 쥔 채 잠이 든 ‘나’는 아래와 같은 꿈을 꾸다.

다리 쪽에 머리가 긴 소녀가 서 있다. 그 소녀임을 금세 알았다. 나를 보고 있는 소녀의 눈이 천정을 향한다. 핏덩어리는 어둠 속에서 독살스럽게 빛나고 천정에서 떨어져 낙하한다. 가슴에 떨어진 충격으로 숨이 막힌다. 온 얼굴에 피를 뒤집어쓰고 눈을 껌뻍이며 가슴 위를 보니 피부성이



가 된 덩어리가 구물구물 움직이고 있다. 작은 입을 벌리고, 뭉쳐진 손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탯줄이 붙은 아기였다. 아기의 무게와 미끈미끈한 감촉에 미쳐버릴 것 같아진다. 소녀는 아기에게 손을 뺀어 가슴에 안자, 공허한 눈빛을 나에게 향했다. 눈 속에 깊은 슬픔이 얼어붙어 있다. 이 아기는 소녀의……, 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를 흔들고 있던 아기가 내 쪽을 향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지를……。 꼭 쥔 작살의 칼날이 깊이 살에 파고들어 피가 떨어진다. 아기가 자지러지는 듯한 소리로 울기 시작하고, 소녀는 손바닥을 젖은 작은 머리에 갖다 대며 무언가 속삭였다. 잠시 지나자 소녀와 아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가냘픈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p.158)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아기 울음소리와 소녀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것은 6장에서 남자의 손자인 J에게 비친 귀환 후의 삶에도 따라다녔음을 짐작하게 한다. J가 말하는 남자는 “항상 술 냄새가 나고, 언짢은 듯 입을 다물고 거실의 TV를 보고 있든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많았”(p.130)고, 마침내 J가 7살 되던 해에 자살로 의심되는 추락사를 하게 된다.

식민지주의에 유래하는 폭력적 상황을 분석하고 탈식민지화 과정에 요구되는 대항폭력에 관해 쓴 프란츠 파농(Frantz Omar Fanon:1925-1961)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Les Damnés de la Terre)』(1961)에는 식민지주의 폭력으로 왜곡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부분이 있다.<sup>10)</sup>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폭력이 뿌리 깊게 구조화된 식민지적 상황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혹은 폭력자와 피폭력자 양측 모두를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눈 깊숙한 곳의 숲』에서 사요코를 성폭행한 4명의 미병 중, 3명은 오키나와전 남부전선에서 모두 사망했고, 세이지의 작살에 찢린 남자만이 생존했으나, 조국으로 귀환한 후 이 남자의 삶은 자신이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린 끝에 자살을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미병의 폭력에 대항폭력을 휘두른 세이지 또한 시각 상실이라는 육체적 상처를 안고 반복되는 트라우마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요코의 여동생 다미코가 학생들을 상대로 전하는 오키나와전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사요코가 자신의 친언니임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 이후 사요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는 미병들에게 욕을 당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상해져……。 그것이 심해진 것은 미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한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아서,

10)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의 제5장 「식민지 전쟁과 정신장해」는 알제리의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선 혁명가이기 이전에 정신과의사였던 파농이 의사로서 구체적인 환자 사례를 통해 식민지적 폭력이 파괴시킨 인간 정신의 예를 설명하고 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언니였는데, 미국인의 아이를 낳을 바에야 죽어, 라고까지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언니는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와는 한 달 정도밖에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 언니의 아버지가 그 아기를 수양아들로 보낸 거 같아요. (p.173)

미병에 의한 성폭력에 이어 마을 남자들에게까지 범해진 사요코의 고통은 사요코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미병에게 딸을 능욕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항의도 할 수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단념해 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참을 수 없음”(p.192)이 가족을 향해 폭발했다. 가족 앞에서 늘 화가 나 있고 술을 마시고 고함치고 날뛰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사요코를 바라보는 “분노와 혐오, 경멸, 증오, 모든 안 좋은 감정이 담긴 듯한 차가운 눈빛”(p.195)은 고스란히 가족들이 견뎌내야 할 고통이었다. 파놓은 피식민지 상태의 국가가 탈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자(폭력자)에 대한 분노와 저지당한 리비도가 폭력적인 형태로 폭발하여 그 폭력이 자신들을 억압해 온 식민자가 아닌 동포에게 향해진다고 한다.<sup>11)</sup>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은 군사점령이라는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축적되어 온 무력감이 굴절된 형태로 딸을 향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 4. 폭력의 기억과 기억의 폭력

인간의 마음에 가해진 보이지 않는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체험한 후, 마음의 상처를 의식적으로 망각한 채 살아가려하지만, 트라우마 기억은 주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저항 상태인 인간에게 불시에 엄습해 온다.<sup>13)</sup> 그리고 이러한 트라우마

- 
- 11) “자신의 근육 사이에 침전하는 공격성을, 원주민은 우선 그 동포를 향해 발휘한다. 흑인이 서로의 살점을 먹는 시기, 또는 북미의 놀라울만한 범죄성을 앞에 두고 경관도 예심판사도 어느새 수수방관해 버리는 시기가 그것이다.”(p.53) “이주민은 원주민에게 배출구 없는 분노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원주민은 식민주의의 조밀한 사슬에 갇혀 있다. (중략) 원주민의 근육 긴장은 이따금씩 유희적인 폭발로 배출된다. 부족 전쟁, 씨족 갈등, 개인들간의 다툼이 그런 예이다.”(p.75)(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2004)『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그린비)
- 12) 광형덕(2015)은 「베도루미순문학과 미국-미군에 대한 ‘대항폭력’을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56)에서 사요코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와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가부장적 오키나와사회가 피해자인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p.38)
- 13) 「‘기억’의 이 갑작스런 도래에 대해 ‘나’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수동적이다. 환언하면 ‘기억’이란 때로 나에게서는 제어불능의,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나의 몸에 엄습해 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岡真理(2000)『記憶/物語』岩波書店, p.5)

체험은 피해자 혹은 목격자의 것만이 아니라 가해자측도 관여한 사건에 대해 트라우마적 체험으로서 반응한다.<sup>14)</sup> 『눈 깊숙한 곳의 숲』에서 60년 전의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무의식의 저장고에는 폭력의 기억이 존재하고, 그 폭력의 기억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고통을 수반한 또 다른 폭력으로 도래한다는 점이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기억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겨우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던 자들이 마치 폭력과도 같이 엄습해 오는 기억으로 인해 결국 자살을 선택한 예는 사요코를 성폭행하고 세이지의 자살에 절린 남자의 삶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폭력적인 사태를 경험한 이들에게 폭력의 기억은 어떤 형태로 도래하는지 그들의 폭력 이후의 삶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2장의 시점인물인 가요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가요는 전쟁 발발 시 마을의 경방단장(警防団長)을 맡고 있다는 평계로 방위대에 동원되는 것을 모면했고, 수용소에 수감된 후에는 미군에게 처세술을 발휘하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마을 구장을 지낸 인물이다. 2장은 사건 후 마을에서 쫓겨나듯 나하(那覇)로 나와 섬에서의 일을 잊고 지내고자 한 가요를 상대로 오키나와전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전쟁 말기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취재하는 여성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2장의 화자는 가요를 ‘너(お前)’라는 2인칭으로 부르며 여성과의 대화 내용과 가요의 회상에 개입하여 가요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방문한 여성의 이름도, 통역병의 이름도 명확히 떠오르지 않던 가요는 여성의 질문으로 인해 당시의 기억을 점차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질문에 대한 가요의 답변은 대단히 짧다.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을 점령자인 미군의 편에서 세이지 검거에 적극 협조한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 돌팔매를 맞은 신체적 고통까지 되살아나지만, 그러한 내용은 함구한 채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달랐지만, 그 일을 여자에게 말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p.57)라는 식으로 인터뷰 녹음이 끝날 때까지 결국 가요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이 돌아간 후 세이지는 불단에 모셔진 위패를 본 순간 거기에서 세이지의 얼굴을 보고 실금해 버린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쓰(ハツ)인가? 목소리는 점점 다가와 뜰의 울타리 위에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달려가는 젊은 여자의 옆얼굴이 보였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소리치며 달려간 여자의 이름이 금방 나올 것 같으면서 떠오르지 않는다.

나에(ナエ)……, 나에…….

부르는 이름은 목소리로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 매미 울음소리가 반향하고, 등을 격심한 통증이

14) 下河辺美知子(2000)『歴史とトラウマ—記憶と忘却のメカニズム』作品社, p.353

엄습한다. 너는 되돌아보려고 고개를 젓혀 위를 보며 쓰러졌다. 계속해서 날 아오는 돌에 맞은, 너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매미 무리의 격심한 울음소리에 너의 말도 신음소리도 뒤섞여 사라졌다. (pp.60-61)

세이지의 얼굴을 환시함과 동시에 사요코의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죽음을 암시하듯 의식을 잃어가는 가요의 모습은 폭력의 기억이 폭력으로 도래하는 예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요의 경우 오키나와전을 취재하는 여성의 질문에 의해서이지만, 3장의 시점인물이 되고 있는 히사코는 아래와 같은 꿈이 그녀의 일상을 위협해 온다.

어둠 깊은 곳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가까이 오자 하얀 모래가 깔린 부락 내의 길을 밟는 여자의 다리와 종아리가 떠오르고, 흘러내리는 피가 모래투성이가 된 발등 위에 하얗고 빨강의 반점 모양을 만든다. 흐트러진 검은 머리가 햇빛을 튕기고, 여자의 풀어헤친 가슴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땀과 눈물이 파란 혈관이 비쳐 보이는 피부와 하얀 길에 흩날린다. 매미 소리와 파도 소리를 여자의 고향소리가 가른다. 듣고 있는 자의 마음을 도려내는 그 목소리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여자의 부릅뜬 눈과 크게 열린 입을 응시하고, 달려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본다. 숲 속에 달려 사라져가는 여자가 마지막으로 낸 고향소리가 귀에 남고, 멈춰서 보고 있는 자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넘쳐흐른다. (p.62)

히사코가 비명을 지르며 숲 속으로 달려가는 여자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정도 전부터이다. 전쟁 말기에 북부의 낙도로 피난을 갔던 히사코는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을 잊으려 애써 왔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지 않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없었지 않았는가”(p.67)라 되뇌며 폭력의 기억을 의식의 심층에 묻어두는 것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향치며 달리는 여자의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는 왠지 모를 자책감을 떨칠 수가 없게 되었다. 10년 전인 1995년 오키나와 북부에서 발생한 3명의 미병에 의한 소녀 성폭행사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진 경험도 있다. 여자의 꿈 이후로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을 끼워 맞춰 보려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이 여자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 한편, “정말 모르는 것일까?”라는 자문과 함께 “섬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얽은 막 아래에 생생하게 있는데, 그 막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산”(p.70)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60년 전 섬에서 본 광경이 갑자기 되살아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까지 오키나와를 여행해도 섬에 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피해 왔던 히사코는 60년 만에 섬을 찾을 결심을 한다. 그런데 섬으로 향하는 버스가 우라소에시(浦添市)에 접어들어 도로를 따라 미군

기지가 보이기 시작하자 히사코는 고개를 돌린다. 소리치며 달려가는 여자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기되는 기억의 단편 속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아단 잎사귀와 미군의 모습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지의 게이트 앞을 지날 때 군복을 입은 2명의 미병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졌으며 냉방이 잘 된 버스 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목격한 미병의 폭행에 대한 공포가 60년이 지난 노년의 신체에도 폭력으로써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미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의식적으로 잊으려 해 온 폭력의 기억은 미군에 의한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그녀들로 하여금 사요코와 관련된 트라우마기억을 되살아나게 한다. 폭력은 희생자뿐 아니라 목격자도 외상의 변증법에 농락되는 것이다.<sup>15)</sup>

그런데 소설에서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목소리가 부재한 사요코의 경우는 어떠할까? 사요코는 자신이 경험한 너무도 큰 충격으로 인해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외부세계와의 교류도 끊긴 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칩거생활 후 봉재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녀가 경험한 폭력의 트라우마는 10년간의 정신치료를 받게 했고, 현재는 요양시설에 맡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사요코의 현재 모습은 동생인 다미코의 시각으로 그려져 있는데, 사요코의 목소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들러, 세이지”(p.202)라고 중얼거리는 한 마디뿐이다. 사요코는 두려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트라우마 기억으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상태로 사건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사요코의 목소리로 사건이 언어화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는 세이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이지가 시점인 물인 장이 수많은 목소리들로만 구성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술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이지 또한 트라우마체험에 대해 서술할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라우마사건은 목격자가 사건 현장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에 따라 충격의 정도와 기억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처럼, 다양한 시점인 물이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눈 깊숙한 곳의 숲』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증언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때 메도루마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언어를 갖지 못한 자를 대신해서 말한다고 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다. 즉, 타자를 위해 타자를 대신해서 증언한다는 것의 불가능성이 이 소설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을 달리하며 다양한 시점인 물이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눈 깊숙한 곳의 숲』에는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인 물이 시각적인 영상의 이미지보다 목소리로써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환기하

15) ジュディス・L・ハーマン、中井久夫訳(1999)『心的外傷と回復』みすず書房、p.13

고 있다는 점이다. 사요코와 세이지가 목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장면 외에도 사요코의 아픔을 분유한 세이지가 “상처 자리에서 계속 흐르는 피의 목소리”(p.27)에 의해 미병을 응징할 결심을 했다는 점,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구장이 세이지를 환시하고,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쓰러지는 장면, 비명을 지르며 숲 속으로 달려가는 여자의 꿈을 꾸는 히사코, 소설가인 ‘나’가 세이지의 작살죽으로 만든 펜던트에서 가슴의 통증과 함께 파도소리를 듣는 장면, 아기 울음소리와 아기를 달래는 소녀의 목소리를 듣는 작살에 찢린 남자, 전쟁을 경험한 자신의 세대와는 달리 행복하길 바란다는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눈물을 쏟는 여중생의 모습 등이 그러하다.

3장에서 히사코가 사건으로부터 60년이나 지난 현재에도 미병의 모습에 격심한 공포를 느끼는 장면, 그리고 8장에서 다미코가 중학생들 앞에서 “만약 오키나와에서 전쟁이 없었다면 그 언니가 미국 병사에게 당해 괴로워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 중에도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p.175)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기해 보자. 히사코의 시선에 들어오는 유사철선 너머로 펼쳐진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의 고통을 잘 손질된 잔디밭으로 은폐하고 있고 전쟁의 기억을 저편과 이편으로 나누고 있다. 철망에 의한 분단이 상징하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점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폭력의 기억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 전쟁이라는 가시적인 폭력은 끝이 났지만, 일상 속에 비가시화된 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모코베 미치코(下河辺美知子)에 의하면 “언어로 되지 않는 기억의 덩어리를 풀어낼 때, 밖을 향해서 열린 회로는 성대이고 사람은 그 성대를 사용해 목소리를 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sup>16)</sup>으로서 트라우마기억을 치유해 낼 수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북부의 낙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건 이후의 삶에 관해 다양한 시점인물이 서술하는 형태의 『눈 깊숙한 곳의 숲』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계속되는 폭력 속을 살아가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16) 下河辺美知子(2000)『歴史とトラウマ—記憶と忘却のメカニズム』作品社, p.17

## 5. 나오며

6장에서 M은 펜던트의 소유자였던 J가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미국 국방부 건물 펜타곤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한 동시다발 자폭테러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M은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J의 죽음은 유감스럽지만, 나에게는 9·11사건을 역시 완전히 부정할 수 없어. 무차별테러는 안 된다든가, 폭력의 연쇄는 용납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치레만 좋은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이라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게 의지해서 평화를 향수하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한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제2, 제3의 9·11을 일으키려고 베투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겠지. 만약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일본에 있다고 한다면, 60년 전에 미군병사를 찌른 섬의 남자가 아닐까……. 음, 그 남자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가정해서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 나의 근거 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펜던트를 바라보니 문득 작살의 칼끝 모양이 빌딩에 돌진해가는 비행기 모양과 겹쳐져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비웃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보여, 일순간, 나에게는 말이야. (pp.138-139)

상기와 같은 M의 발언은 무차별테러의 위협과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간 9·11사건에 대한 메도루마의 사유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테러의 위협을 근절시킨다는 이유로 예방을 위한 대항폭력이 실제 테러 피해국인 미국에서 발동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테러는 대항테러를 부르고, 폭력은 대항폭력을 부른다”<sup>17)</sup>는 파농의 말처럼 폭력의 악순환은 1960년대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메도루마는 오키나와의 현실을 생각할 때 자신은 결코 “자폭테러에 No라고는 말할 수 없”<sup>18)</sup>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메도루마의 발언은 자폭테러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와는 분명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카이 다카시(酒井隆)는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폭력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폭력의 추상적, 일반론적인 거부가 폭력을 불러버리는 구조”<sup>19)</sup>, 즉 폭력에 대한 거부가 오히려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의 구조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메도루마는 9·11테러 이후 비폭력과 반폭력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는 폭력을 둘러싼 담론에 대해,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입장 표명이 아니라 가령 대항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측에서 그들에게 가해져 온 일상화된 폭력에 대해

17)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2004)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p.113

18) 目取真俊(2004) 「フロアとの応答」 『EDGE』13号, p.114

19)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2007) 『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 산논, p.218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그러한 메도루마의 사유를 픽션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10장에서 오키나와인 2세 통역병이 오키나와전에서의 공적을 표창하겠다는 오키나와현의 호의를 거절하는 이유가 섬에서 발생한 사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면서 떠올리면 괴로워져 견딜 수 없어서 남에게 말하는 일도 없이 마음속에 봉인”(p.204)해 온 사건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모두 이야기한 그는 60년 전의 일이고, 공포함으로 인해 새삼 문제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당신의 기억 속에만 담아두었으면”(p.220)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다. 그러나 소설은 이러한 통역병의 부탁까지도 포함하여 결국 그의 편지를 원문 그대로 공표하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눈 깊숙한 곳의 숲』의 서술구조가 지향하는 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세대가 교체되어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공공의 역사로 등록되지 않은 채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초조함과 증언할 사람이 사라지려고 하는 사건을 역사의 어둠 속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강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눈 깊숙한 곳의 숲』을 통해 60년 전의 폭력적인 사건과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 서술되고 있는 것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식민주주의적 폭력의 현재 모습이었고, 또한 폭력의 기억이 60년이 지난 현재에도 비가시화된 형태로 새로운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체험을 언어화하지 못한 채인, 즉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요코와 미군에 의한 신체적 폭력으로 시력을 잃고 폭력적인 순간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살아가는 세이지, 그리고 폭력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미와 히사코의 60년간의 삶을 통해 폭력적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이 기억에 주는 충격과 언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미군의 폭력과 그들의 폭력에 대한 대항폭력이라는 관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항폭력을 주장하는 것도, 대항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눈 깊숙한 곳의 숲』은 폭력에 의해 점령된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비가시화된 형태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폭력의 실태와 폭력의 기억을 언어화하지 못한 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각 장마다 ‘목소리’가 소설 공간을 울리고 있고, ‘목소리’에 의해 기억이 환기되는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침묵하지 않는 것, 즉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곽형덕(2015)「메도루마순문학과 미국-미군에 대한 ‘대항폭력’을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56, pp.35-41  
도미야마 이치로, 임성모 옮김(2002)『전장의 기억』이산, pp.44-49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2007)『폭력의 철학: 지배와 저항의 논리』산문, p.218  
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2004)『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그린비, p.53, p.75, p.113  
大城真俊(2009.08.23)「記憶へ挑戦する言葉の力」『琉球新報』  
岡真理(2000)『記憶物語』岩波書店, p.5  
奥野修司(2006)「『虹の鳥』目取真俊—暴力と憎しみで沖縄の現実を描く」『文学界』60(9), pp.242-244  
尾崎文太(2011)「目取真俊『虹の鳥』考—フランツ・ファノンの暴力論を越えて」『言語社会』5, pp.220-234  
佐藤泉(2008)「1995-2004年の地層—目取真俊『虹の鳥』論」『攪乱する島—ジェンダー的視点』社会評論社, pp.163-194  
ジュディス・L・ハーマン/中井久夫訳(1999)『心的外傷と回復』みすず書房, p.13  
越川芳明(2009)「森の洞窟に響け、ウチナーの声」『小説トリッパー』冬季号, pp.434-436  
下河辺美知子(2000)『歴史とトラウマ—記憶と忘却のメカニズム』作品社, p.17, p.353  
鈴木智之(2013)『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鉗—目取真俊の<文学>と沖縄戦の記憶』昌文社, p.146, p.148  
谷口基(2006)「不可視の暴力を撃つために—目取真俊『虹の鳥』論」『立教大学日本文学』97, pp.188-196  
目取真俊(2013)「コザ『街物語』より」『目取真俊短編小説選集3 面影を連れて』影書房, pp.103-104  
\_\_\_\_\_ (2009)『眼の奥の森』影書房, pp.3-221  
\_\_\_\_\_ (2006)『虹の鳥』影書房, pp.190-191  
\_\_\_\_\_ (2004)「フロア—との応答」『EDGE』13号, p.114  
柳井貴士(2012)「不可視なものとの抗い—こむけて」『文藝と批評』11(6), pp.68-80

---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

---

 < 要 旨 >
 

---

## 메도루마 순의 『눈 깊숙한 곳의 숲』론

- 식민지주의적 폭력의 현재 -

소명선

메도루마 순의 『눈 깊숙한 곳의 숲』(2009)은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본도 북부의 낙도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해 사건 발생 당시와 60년 후인 현재를 횡단하며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소설의 주요한 모티브가 미군에 의한 성폭행사건과 이에 대한 대항폭력이라는 점에서 전작인 『희망』과 『무지개 새』와 동일한 지평에서 논의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8명의 시점인물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의 진상과 사건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독특한 서술구조와 ‘목소리’로 환기되는 폭력의 기억과 그 양상에 주목하여 대항폭력이라는 표층적인 의미와는 다른 관점에서의 고찰을 시도한다. 이들 시점인물에 의해 서술되는 각 시점인물이 서술하는 폭력적인 사건의 경험과 기억은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적 폭력에 노출된 오키나와의 현실이었다. 시점인물에게 있어 폭력의 기억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폭력으로 작동하는 양태와 그들의 언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눈 깊숙한 곳의 숲』은 이러한 비가시화된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 A Study on Medoruma Shun's "ME NO OKU NO MORI"

- the present of colonial violence -

So, Myung-Sun

Medoruma Shun's "ME NO OKU NO MORI"(2009) is the work which talk about while crossing the present 60 years later at the time of a incident about the incident that took place in a remote island in northern Okinawa Island in last years of Pacific War. The main motif of this novel is the rape by US soldiers and a combat violence against this. For this reason, there is a tendency to be discussed in the same horizon as the "KIBŌ" and "NJI NO TORI" of previous work. I try the consideration at the point of view unlike the against violence.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memory of the violence roused by 'voice' and narrative structure that talk about the truth of the incident and the life after the incident from a variety of angles by eight viewpoint people. At first I analyze appearance of the violence talked about by these viewpoint people and confirm reality of Okinawa exposed to violence of the colonialism to continue. Through experience and the memory of the violent incident that each viewpoint person talks about, I confirm the aspect to come as new violence and the influence that memory of the violence gives to language again. And I consider it what kind of directionality "ME NO OKU NO MORI" shows as a method against the violence that was non-visualized.